

#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 속고(續稿)의 집필 세계 - 의식해방과 망명지 일본에서의 사상적 동요 -

고레나가 순\*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정합성(整合性)과 변용(變容)<br>- 새로운 로망으로 |
| 2. 「속고」의 성립과 판본(版本)의 이동(異同) | 5. 나가며<br>- 「상엽(霜葉)」과 「가짜 좌파(左派)」 |
| 3. 본편에서 「속고」로의 전개-봉인의 해제    |                                   |

主題語 : 마오둔(Mao Dun), 상엽(Mulberry leaves), 완칭(Wan Qing), 친더쥘(Qin De Jun), 현재화(salient issue), 변용(transformation), 고백서(confessional narrator), 좌파(the left party)

## 1. 들어가며

마오둔(茅盾)의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이하 『상엽(霜葉)』)은 1942년에 집필하여 이듬해 1943년에 걸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민국(民國)의 1920년대 초기인데, 본래는 20년대 후기의 우한(武漢) 정부 붕괴 후까지를 써 나갈 일대 장편으로 구상했었다. 작자 자신이 속편의 집필을 넘지시 암시하기도 해서 이 작품은 「미완의 대작」이라 불려 왔는데 1996년에 『상엽(霜葉)』의 「속고」가 공간(公刊)되었고, 약 반세기를 거쳐 『상엽(霜葉)』은 「완결」을 향해 치닫는 전개를 보였다. 「속고」는 본편 14장에 이어지는 18장까지의 경개(梗概), 골자(大綱), 초고의 일부 및 18장 이후의 각 장의 경개와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속고」는 1974년, 작자가 78세 때 집필된 것이 22년 후인 마오둔 생탄 100년이 되는 해에 공표된 것인데, 『상엽(霜葉)』의 집필로부터 30여 년 사이에 그 집필 의식에 변용이 보이고, 「속고」는 아직 초고(草稿)의 단계이며, 「속편」이라 부를 수 있는 텍스트는 아니라 하겠다.

\*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총장

그러나 초고 단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오둔 집필 의식의 원형을 탐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마오둔은 이 「속고」를 집필하는 행위를 통해 작가로서 자신이 귀착할 곳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제까지 봉인해 두었던 것을 마오둔은 이 「속고」 속에 풀어 놓고 있으며, 그 변용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풀린 봉인은 프리즘과 같이 마오둔을 비춰 보인다. 「속고」는 소설가 마오둔이 최후에 자기 자신과 마주앉아 자기의 존재 의미를 증명(아이덴티파이)하려고 한 「고백」의 서(書)로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속고」의 성립, 그리고 『상엽(霜葉)』에서 「속고」로의 전개가 갖는 정합성(整合性)에 대해 분석을 더하며 마오둔의 집필 의식의 원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속고」의 성립과 판본(版本)의 이동(異同)

공간된 「속고」에는 두 종류의 판본이 있다. 『수확(收穫)』 96년 3기에 게재된 「속고」(이하 「갑본(甲本)」이라 부른다), 및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의 본편, 속고,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을 합책(合冊)한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쓰촨문예출판사, 96년 2월) 「속편 미간수고수판(續編未刊手稿首版)」이라 칭하여 수록된 것(이하 「을본(乙本)」이라 부른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 『마오둔 작품 경전(經典)』(중국화교출판사, 96년 6월) 제4권에 「속고」가 수록되어 있는데, 「갑본(甲本)」과 비교해 두 세 군데 식자(植字) 오류라고 생각되는 이자(異字)가 보일 뿐, 「갑이본(甲異本)」이라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갑본(甲本)」 「을본(乙本)」의 사이에는 백여 군데의 이동(異同)이 있고, 「속고」는 발표된 동년에 이본(異本)이 존재한다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을본(乙本)」의 편집자가 제멋대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애초에 이 「속고」는 어떤 경위를 거쳐 양지로 나온 것일까? 「을본(乙本)」을 실은 합책본에는 우푸휘(吳福輝)의 「예언」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확(收穫)』에도 이 사람의 단평(短評)인 「白楊樹下的月季小院」이 실려 있다. 우 씨는 95년에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의 텔레비전 드라마화 「고문」역을 맡았고, 그래서 「속고」의 웨이타오 수사본(韋韜手寫本)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단평(短評)」). 「속고」로 인쇄 유포되어 있는 것은 마오둔의 자제인 웨이타오(韋韜) 씨가 옮겨 쓴 것이며 마오둔의 자필 원고 자체를 인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말로부터 읽어 낼 수 있다. 단편적으로 기록된 자필 원고를 웨이타오(韋韜) 씨가 정리하고 청서(淸書)하여 공표했다. 우 씨도, 「갑본(甲本)」의 교정을 맡은 왕중천(王中忱) 씨도 자필 원고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필 원고를

본 것은 아마도 수사(手寫)를 한 웨이타오(韋韜) 씨(를 시작으로 마오둔의 유족들)뿐이라는 것이 된다. 우리가 보는 「속고」는 이러한 제약을 수반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두고 싶다.

갑을 이중(二種)의 판본의 이동(異同)은 단순한 식자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예: 갑「二人目相視, 을「二人且相視)도 많지만, 편집자가 제멋대로 바꿔 쓴 것(예: 갑「該浮一大白, 을「該喝一大杯)도 눈에 띈다. 「該喝一大杯」를 시작으로, 을「玉盡量才(갑「玉尺量才), 을「真龍反驚叫(갑「真龍反驚叫), 을「毛巾鑿子(갑「毛巾把子) 등은 일본 편집자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sup>2)</sup> 수사한 웨이타오(韋韜) 씨도 갑본이 정확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sup>3)</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납득하기 힘든 이동(異同)이 있다. 제18장 골자의 모두 부분, 평투이안(馮退庵)의 후배가 왕민즈(王民治)의 일본 행을 돕는 장면에서 이 후배가 「在日本勾當, 約三個月(갑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본에서는 「在日本逗留的三個月」라고 한다. 재차 웨이타오(韋韜) 씨에게 물어 마오둔의 자필 원고 확인을 부탁했다. 자필 원고는 「勾當, 웨이타오(韋韜) 씨는 이 「勾當」는 「辦理(처리하다)라는 의미라고 말한다.<sup>4)</sup>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라고 하는 고어의 용법을 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스즈키 양행(鈴木洋行)의 외교원인 이 후배가 일본에서 사무 처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오둔의 장남 부부 웨이타오(韋韜)·천샤오만(陳小曼)의 회상록 「마오둔 만년의 생활」에 의하면 마오둔은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가 미완으로 끝나 있는 것을 상당히 마음에 걸려 했던 것 같다. 「이야기의 전개는 전반 부분에서 끝나 있고, 주요한 인물의 운명에도 결말을 짓지 못했다.<sup>5)</sup>」라고 친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웨이타오(韋韜) 씨가 「그러면 계속해서 써 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 책은 중국의 고전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고, 게다가 제재(題材)를 보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부터 한참 먼 것이니까 위험도 적을 텐데요.<sup>6)</sup>」라고 권하고 있다. 마오둔은 그로부터 당장 작업에 착수해 속편의 집필에 「1974년의 반을 썼다.<sup>7)</sup>」라고 한다. 집필 당시는 아직 문화대혁명의 동란이

1) 우푸휘(吳福輝), 왕중천(王中忱) 씨가 필자에게 보낸 서신.

2) 주1)과 같음

3) 웨이타오(韋韜) 씨가 필자에게 보낸 서신.

4) 웨이타오(韋韜) 씨는 필자의 문의에 선뜻 회답을 주었으며, 이 부분의 마오둔 자필 원고 복사를 자료로 제공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5) 「茅盾的晚年生活(三)」(『新文学史料』1955년 3기, p.82

6) 주5)와 같음.

7) 위와 같음. 마오둔은 본편과 속편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본편에 자구(字句)에 수정을 더해 쓰촨인민출판사에서 재판했다(위와 같음, 83쪽). 해당 서적은 80년 7월에 출판되었다. 개략(概略), 대조(對照)한 결과, 예서는 다음과 같이 연령과 연수를 「본편」에 맞춰 수정했다. ([ ] 안에 쓴 것이 구판)

한창이었고, 문학자는 정치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오로지 「구체시사(旧体詩詞)」를 이야기거리로 삼곤 했다고 한다.<sup>8)</sup> 그 「위협」을 피하는, 무언가를 기피(忌避)하는 환경 하에서의 집필은 묘하게도 본편 집필 시의 상황과 닮아 있다.

1942년 구이린(桂林)에 있었던 마오둔은 6월, 항일전쟁 전야에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장편을 집필하기 시작한다. 이 장편으로 마오둔은 신해혁명(辛亥革命)에서 「오사(五四)」 전야까지 과거의 비교적 긴 기간의 시간을 다룰 구상을 안고 있었는데 그 집필 구상은 그 때까지 그가 동시대의 사회의 움직임에 정교하게 작품 안에 내포시켜 온 소설 작법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이었다. 그 구상을 품고 그는 37년의 항일전쟁 발발로부터 42년까지의 기간에도 『제일계단적고사(第一階段的故事)』(38년), 『부식(腐蝕)』(41년) 등, 의 동시대에서 제재를 찾은 장편을 발표하고 있다. 마오둔은 항일전쟁 발발 후, 창사(長沙), 우한(武漢), 홍콩(香港), 광저우(廣州), 신장디화(新疆迪化)(현재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연안(延安), 충칭(重慶), 홍콩(香港), 구이린(桂林), 그리고 다시 충칭(重慶)으로 각지를 전전하며 이동한다. 타지에서는 잡지의 편집이나 문예계의 협회 임원, 대학 강사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구이린(桂林)에서의 8, 9개월은 「나는 구이린에서는 객인(客人)이었기 때문에 산더미 같은 사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조용히 집필에 전념할 수 있었다」<sup>9)</sup>고 한다. 마오둔은 「지금의 현실 생활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1927년의 대혁명의 일은 써도 더 이상 역사상의 일로 여겨져 오히려 국민당 도서 검열관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sup>10)</sup> 여기에는 당면의 현실적인 제재로부터 떨어져 국민당의 검열이라는 정치적 억압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동시대의 정치 상황과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는 본편과 속편이 공통적인 집필 환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 망동의 집단 역학이 사납게 놀치는 정치 상황 하에서 속편의 집필은 「비밀리」에,<sup>11)</sup> 마치 「지하활동」과 닮은 상황<sup>12)</sup>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속편에 묘사되는 정치 의식, 성애(性愛) 의식은 집필 시에 발표되었다면 당장 탄핵을 받았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문화 혁명」까지 시대를 통틀어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속편 집필을 하는 마오둔의 의식 속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有一個滿了三歲[周歲]的女孩子」「他和夫人的短短幾年[兩年多]的夫婦生活」「一年前[四年前]自己從省城趕回家來」「他的夫人在他家短短五年[兩年]的生活」「錢永順的三周歲[歲半]的女兒」「這三歲[歲半]的小女孩」

8) 위와 같음.

9) 『我走過的道路』(下), p.300

10) 주9)와 같음.

11) 우후휘(吳福輝) 「白楊樹下的月季小院」 『收穫』1996년 3기, p.46

12) 주11)과 같음.

문화 관료로서의 자기를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그의 일원으로 정의하는 범(汎) 모럴의 의식 따위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작가 마오둔」 「소설가 마오둔」으로서의 원점에 다시 서려고 하는 의식, 또는 더 먼 옛날, 고금중외(古今中外)의 고전을 독파하면서 일어난 일대 로망(서사소설) 집필의 꿈, 그 초심으로의 회귀라고 해야 마땅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 3. 본편에서 「속고」로의 전개-봉인의 해제

먼저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 본편의 줄거리를 확인해 두자. 대소칠가족(大小七家族)이 묘사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은 장가(張家)와 치엔가(錢家), 그리고 황가(黃家)의 세 가족이다.

무대는 1920년대 초기의 장난(江南)의 소도시. 상가(商家)인 장가(張家)는 남편이 죽은 후 미망인이 된 장부인과 죽은 남편의 어머니가 일을 도맡고 있었고, 치엔가(錢家)로 시집을 간 루이 숙모(瑞叔母), 황가(黃家)로 시집 간 딸 완칭(婉卿)까지 활발한 모계 가족의 양상을 띠고 있다. 후계자 아들인 쑤루(恂如)는 아내 바오주(寶珠)의 사이에 일녀인제(一女引弟)를 두지만 사이가 안 좋고, 조모의 외손인 징잉(靜英)을 마음 속에 몰래 그리고 있다. 치엔가(錢家)의 장남에게 시집간 루이 숙모는 아들 둘을 잃고 후계자로 치엔가(錢家)의 삼남(三男)인 아들 치엔량차이(錢良材)를 맞이했다. 치엔량차이(錢良材)는 농민을 위해 행동하는 개명적인 지주로, 논밭이 관수(冠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증수(增水) 때 강에 기선(汽船)을 띄우는 선박 회사의 경영자 왕보선(王伯申)과 대립한다. 치엔량차이(錢良材)의 아내는 젊어서 병으로 죽고, 그에게는 어린 딸 지팡(繼芳)이 남겨진다. 루이 숙모가 사안(思案)하는 후처(後妻)는 징잉(靜英)이었다. 완칭(婉卿)의 남편인 황허광(黃和光)도 상가에서는 고전(古典)에 익숙한 교양인이지만 아편 때문에 성적(性的) 불능이 된다. 자기 남편에게 완칭(婉卿)은 인자한 어머니와 같이 대하며 위로하고, 치엔가(錢家)에서 양녀를 받아들인다. 이 외에도 상하이와 거래 상, 강한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평가(馮家), 봉건지주인 자오쇼우이(趙守義)와 그 측근, 화학을 좋아하는 노인 주싱지엔(朱行健) 등이 세 가족과 각각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쑤루(恂如)는 자기의 마음을 징잉(靜英)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길 꺼리고, 황허광(黃和光)은 성적 불능으로 인한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치엔량차이(錢良材)는 선박 회사의 실력 행사 앞에서 무력하다. 작품은 이 세 가족의 젊은 남자 셋 사이에 오가는 회화 속의 치엔량차이(錢良材)의 질문,

한 사람의 인간이 선과 악을 함께 갖추는 연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막을 내린다.

「속고」의 시대 배경은 본편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북벌(北伐)에서 「4·12」쿠데타로 전개된다. 소설의 무대는 본편의 장난(江南)의 소도시를 핵으로 하면서도 상하이(上海), 일본, 베이징(北京)으로 확대된다. 특히 일본의 등장이 주목을 끈다. 마오둔은 1년 9개월의 일본 「망명」을 경험하면서 일본을 소설의 무대로 한 적이 없었다. 이 「속고」에서는 황허광(黃和光)이 치료, 왕보선(王伯申)의 아들 왕민쓰(王民治)가 유학, 치엔량차이(錢良材)가 망명한 토지로 일본이 등장한다. 치엔량차이(錢良材)가 19살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속고」의 일본을 향한 경사(傾斜)는 그 때까지의 마오둔 소설이 유지하던 구조와 어딘가 이질적인 측면을 느끼게 한다. 등장 인물 중, 완칭(婉卿)과 치엔량차이(錢良材) 둘이 본편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속고」가 「속편」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이다. 완칭(婉卿)은 본편에서 자애에 가득 찬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속고」에서는 기우(氣宇)와 기품(氣品)이 넘치는 여성으로 그려지며 북벌군의 입성을 획책(畫策)하는 행동적인 일면도 부여 받고 있다. 치엔량차이(錢良材)는 완칭(婉卿)을 이상적인 여성이라며 숭배하는데, 「4·12」쿠데타로 남편을 살해 당한 장진주에(張今覺)라는 여성(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음)과 인연이 되어 둘이 같이 암살 당한 장진주에(張今覺) 아버지의 복수(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 「속고」는 단편적이라 무슨 복수인지는 쓰여 있지 않다)를 위해 북경으로 간다. 황허광(黃和光)은 아편을 끊고, 성기장애도 일본에서 치료가 성공하여 아내 완칭(婉卿)과 에로틱한 농담(戲言)을 주고 받는다. 둘은 치엔가(錢家)에서 데려온 양녀 지아바오(家宝)를 자오디(招弟)라 개명하고 후일에는 이윽고 아들이 태어난다. 이상이 「속고」의 줄거리이다. 「속고」는 본편의 틀에서 벗어나 별도의 로망의 세계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듯 하다. 인물의 정합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전에, 「속고」에서 보여지는 정치 의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후술)가 「속고」가 나온 후에도 풀리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속고」에서는 「국민당 좌파」가 명백하게, 그것도 공산당과 등거리로 그려지고 있다. 제1차 국공합작시대(第一次国共合作時代)가 시대 배경이므로 그러한 거리감으로 그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할 만도 한 일이지만, 정당 조직에 대해서 본편에서는 아무것도 묘사되고 있지 않다. 고작 해 봤자 공산당이 자오쇼우이(趙守義)의 입을 통해서 묘사되듯 「첸두시에(陳毒蝟) (첸두슈(陳独秀)의 멸칭(蔑稱))라는 무리」 「첸(陳)의 도당(徒黨)」이라는 등 비유적으로 이야기 거리가 되는 정도이다. 정당 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작품에서도 인물상을 통해 암시하는 정도였던 마오둔의 작법을 고려했을 때, 「속고」에서는 오히려 정치 의식을 현재화(顯在化)하는 일에 아무런 주저도 구속도 느끼고 있지 않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예로 들자면(쪽수는 갑본),

a) 허광과 이야기를 나누는 량차이가 다음과 같이 술회(述懷)한다.

「공산당은 국민당과 합작하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일으키기 위함이라 말한다. 지금은 같은 길을 걸지만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성취되고 나면 이번엔 역으로 자기들이 이루어 낸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타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당 내에 국공(國共) 합작에 반대하는 일파가 있고 이들이 우파(右派)라 불린다. 그럼 좌파(左派)는 공산당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이다.」(12쪽)

b) 장진주에가 량차이에게 말하는 부친의 약력(의 포인트).

「베이징에 있는 대학 교수, 좌파 사상을 품고 있는 사람, 군벌(軍閥)의 주목을 받아, 딸(즉 진주에, 당시 17세)을 데리고 남하, 홍콩에 반 년 체재. 1924년 광저우로 옮겨 가 국민당 좌파가 됨, 진주에는 18세, 링난(嶺南)대학에 진학하여, 그녀도 국민당에 가입. 26년 아버지는 명(命)을 받고 홍콩으로 부임, 이윽고 북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홍콩에서 암살 당함. 27년 봄 딸이 결혼(21세), 남편은 광시(廣西) 출신. 북벌에 남편과 함께 종군, 남편은 이윽고 남창군영(南昌軍營)의 소장참모(小將參謀)가 되어(실제로는 계계파(桂系派)의 군영(軍營) 주재(駐在) 연락관(連絡官)이며, 장(蔣), 첸(陳)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었다), 후일 재차 종군하여 저장성(浙江)에 들어감. 사단 정치부 주임. X연대와 함께 X현(縣)을 공격함.」(39쪽)

c) 복수를 할 때 부상을 당한 진주에가 입원한 곳에 량차이가 매일 병문안을 와 시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른바 국민당 좌파의 대부분이 변절해 버린 것을 한탄하며, 공산당이 남창기의(南昌起義) 후에 산터우(汕頭)까지 남하하여 또 다시 격파 당하고, 광저우 코윈도 반짝 피기가 무섭게 져 버린 꽃 신세가 되어 버린 것에 놀랐다.」(41쪽)

「속고」에서 치엔량차이(錢良材)와 완칭(婉卿)에게 스포츠가 비취 지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 했는데, 치엔량차이(錢良材)는 국민당에 가입하여(35쪽), 이윽고 국민당 좌파인 부친을 둔 장진주에(張今覺)와 인연을 맺는다. 장진주에(張今覺)의 최초의 남편 엔우지(嚴無忌)는 장제스(蔣介石)에게 공산당으로 의심받아 살해당하는데, b)에서 서술하듯 엔우지(嚴無忌)는 광시

(廣西) 출신의 계계파(桂系派)라고 설정되어 있다. 이 「계계파(桂系派)」는 다른 문맥으로도 등장한다. 「4·12 쿠데타」 후, 치엔량차이(錢良材)가 위협에 처했을 때, 「다행히 현장(縣長)이 옌(嚴) 주임의 친구이고, 국민당의 많은 파벌 계통 중에 그들은 같이 계계(桂系)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량차이(良材)를 지키려고 한 것인데」(37쪽)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계계(桂系)」가 량차이(良材)를 옹호한다. 「계계(桂系)」란, 광시(廣西)에 거점을 둔 군벌로 1920년대 중기부터는 리종렌(李宗仁), 바이충시(白崇禧)들 「신계계(新桂系)」가 통솔하여, 「1926년 국민혁명군 제7군에 편성되어 북벌에 참가. 1927년, 장제스(蔣介石)와 합류하여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킨다. 1929년, 중앙권력의 쟁탈을 둘러싸고 장계전쟁(蔣桂戰爭)이 발발, 계계(桂系)는 대패(大敗)하여 광시(廣西) 이외의 기반을 잃는다」.<sup>13)</sup> 1920년대 후반의 신군벌 「계계(桂系)」는 장제스(蔣介石)와 국민당 중앙의 헤게모니를 놓고 쟁탈전을 반복했다. 「계계(桂系)」는, 장제스(蔣介石)의 쿠데타를 지지하여 참가했지만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장(蔣)과 대립하였고, 개중에는 인간 관계 등을 이유로 좌파를 옹호하는 자도 있었던 것을 「속고」에서 읽어 낼 수 있다.

마오둔이 「속고」에서 국민당에 대한 정치 의식을 현재화(顯在化)하는 것은 그것을 단독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의식 안에 봉인해 두었던 것을 해방시킨 일과 연계하여 현재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무대로 등장하는 것은 그 결과인 것이다. 마오둔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토지는 이당(離黨) 후의 「망명」지에서 사상적 동요, 친더권(秦德君)과의 연애와 그 후의 파탄,<sup>14)</sup> 이라고 하는 그에게 있어 빼도 박도 못하는 아포리아(난제)와 떼어낼 수 없는 토지로써 의식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포리아를 무시하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며, 「속고」를 「고백」의 서(書)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이 그가 안고 있는 아포리아를 드러내 보였기(물론 직접 일인칭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때문이다.

- d) 「량차이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었고, 셋은 하녀(女中)를 데리고 도쿄에 와서는 완칭은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보냈고, 량차이는 당시에 역시 도쿄로 망명을 와 있었던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 탈당자들과 사귀었으며, 완칭은 일본어를 공부했다. 3개월 후, 병은 나았고, 완칭의 일본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량차이는 일본의 스파이(특무경관-필자의 주)에게 찍혔기 때문에 상하이로 돌아간다고 말한다」.(36쪽)

13) 왕진우(王金吾)·천루이운(陳瑞雲)의 주편(主編)인 『중국현대사시전(中國現代史詩典)』, 지린문사(吉林文史)출판사『國民黨新軍閥史略』(쑤에모청(蘇謀成)편저, 샤먼(廈門) 대학출판사, 1991년)참조. 오사카 외국어대학의 다나카 히토시 선생님의 교시를 받았다.

14) 친더권(秦德君)『櫻蟹』『野草』41, 42호(1988년 2, 8월).

e) 왕보선의 아들 왕민쓰가 평치우팡(馮秋芳)과의 혼인을 내켜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장가가 경영하는 가게의 지배인 송시엔팅(宋顯庭)의 아들 송샤오룽(宋少榮)이 왕민쓰에게 이렇게 말한다.

「표자정규(杓子定規)로 생각할 것 없다. 결혼하고 부부가 된 후에 너는 일본에 가고, 장래에 뜻이 맞는 사람이 생기면 평과는 이혼하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당분간은 평을 상대로 시름을 달래면 되지.」(26쪽)

f) 왕민쓰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은 평은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혼례 당일, 신부의 미모를 처음으로 본 왕은 천국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신혼 초야를 보내기 전에 왕은 송샤오룽이 했던 이야기를 평에게 털어 놓는다.

왕 「가령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버지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한 다음에, 돈을 좀 마련해서, 일본에 갈 거야, 그 때는……」

평 「그 때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왕 「아니, 돌아오지. 가령 뜻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 몰래 동거를 하게 되더라도 그 여성이 질투만 하지 않는다면, 1년에 몇 번 돌아와서 너랑은 원래대로 부부로 지내는 거지.」

평 「그런 거 뭐 흔한 일인걸. 몇 년 새 부잣집 자제들은 그런 분신술을 쓰는 사람도 많잖아. 당신도 요령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왕은 당황하여 「그런 분신술 따위 부럽지도 않아. 그렇게 여성을 모욕하고, 가지고 놀 만큼 타락하지 않았는걸」이라며 부정한다.

e)에서 송샤오룽이 말한 이야기가 f)에서는 「이혼」은 하지 말고 마음에 둔 여성과 「동거」 한다는 이야기로 바뀐 것은 아내가 된 평의 아름다움에 반한 남성의 에고이즘이 그렇게 말하도록 시킨 것이리라. 마오둔의 실제 인생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과 통하는 것을 d) e) f) 에서 유출하면, 공산당에서 탈당(脱党)(마오둔의 경우는 이당(離党)), 일본 망명, 동거, 이혼(소동) 등이며, 이는 모두 마오둔이 의식 안에 봉인하여 소설로 쓰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sup>15)</sup> 또는 여기에 「혼례 식장의 미모의 신부」를 추가해도 좋을 지도 모른다. 평치우팡의 신부가 된 모습은, 비단 베일로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앞가슴에서 살짝 엿보이는 옥과 같은 피부, 풍만한 가슴, 날씬하고 부드러운 몸의 곡선, 베일을 걷어 내고 마주보면 혼이 떨리도록

15)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마오둔이 일본에서 연애 생활을 보낸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茅盾代表作選』(상하이전구(上海全球)서점, 민국(民國)) 「서(序)」 「此後他會至日本, 渡了短期的戀愛生活。同時復努力於創作。」라고 되어 있다.

반짝이는 눈동자, 우아한 입매, 이러한 형용은 마오둔 자신의 혼례에서는 「부(負)(마이너스)」의 소유물, 즉 말이 안 되는 것<sup>16)</sup>이었고, 잃어버린 바람(願望)은 역시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경우와 「속고」의 큰 낙차(落差)<sup>17)</sup>를 생각하면, 그 혼인이 부친의 정신적 죄과(罪過)를 갚는 일종의 슬픔을 동반하는 것이었기<sup>18)</sup> 때문에, 의식의 바닥에 봉인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 봉인을 그는 풀어 내 버린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정합성(整合性)과 변용(變容) - 새로운 로망으로

본편에서도 「속고」에서도 완칭(婉卿)은 「한 조각의 붉은 구름이 떠오른 것처럼」 일대를 밝히는 매력적인 여성이다(본편 4장, 「속고」갑본16쪽). 남편의 성기장애도 필히 고칠 수 있다고, 고치기 위해서라면 서양이라도 일본이라도 어디라도 따라 가겠다(본편에 일본이 등장하는 것은 이 문맥으로 한 부분에 한하는데, 속편의 복선으로 기능한다)고 위로하며, 「속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치료를 성공한다. 이 완칭(婉卿)에게 「속고」에서는 고전문학을 향한 조예(造詣)가 부여된다. 남편 황허광(黃和光)은 본편에서 「한 권의 두시(杜詩)를 손에 들고, 방 안을 천천히 서성거리고 있었다」(4장)라며, 평상시부터 고전을 즐겨 읽는 지방의 신사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남편과 완칭(婉卿)은 육조(六朝)의 변려문(駢文)을 논하고, 남편의 병이 호전된 다음날 아침에는 『시경(詩經)』을 가지고 농담을, 그것도 에로틱한 농담을 「속고」에서 주고 받는 것이다. 완칭(婉卿)은 육조변려 중에는 량린시엔(梁令嫻), 즉 남조양(南朝梁)의 류링시엔(劉令嫻)의 「제문(祭文)」을 가장 칭찬했으며, 중추(中秋)의 절구(節句)에 량차이(良材)가 황가(黃家)을 찾아가 만찬 자리에 앉아 술을 걸고 시를 읊을 때에도 「제문(祭文)」의 일절(一節)을 고음(高吟)한다. 중양(重陽)의 절구 전야에 다시 황가(黃家)를 찾아가 량차이(良材)가 두푸(杜甫)가 절찬(絶讚)한 유신(庾信)의 「애강나부(哀江南賦)」는 어떤지 묻자, 완칭(婉卿)은, 두푸(杜甫)가 유신(庾信)을 퇴상(推賞)하는 것은 그의 적요(寂寥)한 일생이 자신과 비슷했기 때문이고, 제가

16) 주14)와 같음. 마오둔은 친덕군(秦德君)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스스로의 혼례에 대해 말하며, 「어머니의 재촉에 신부가 머리에 쓴 것을 걷어 올리고 보니, 「도둑 고양이」같은 여성의 용모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을 쳤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17) 주16)과 같음.

18) 마오둔의 아버지는 공가(孔家)의 딸과 맺어질 예정이었는데 상대의 생신팔자(生辰八字)가 「남편을 이겨 먹고 궁합도 안 좋다」는 별점(星占)이 나와 파담(破談) 했다. 딸은 자기 운명을 비관하여 독신으로 살았고, 병으로 요절했다. 아버지는 공가에는 친정채(親情債)의 빚이 있다고 줄곧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는 생각에 마오둔과 공덕즈(孔德止)의 혼인을 무리하게 추진했다.(丁爾綱(1995)『茅盾 孔德止』중국청년출판사, p.7)

량린시엔(梁令嫻)을 절찬하는 것은 그 심정이(만약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도 그러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남편의 성적 불능이 치료되고 날이 밝은 다음날 아침, 허광(和光)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테이블을 젓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시경(詩經)』에서 인구(引句)하여 희롱거린다. 먼저 「月出皎兮」(「陳風·月出」), 「角枕粲兮」(「唐風·葛生」), 「有美一人, 清揚婉兮」(「鄭風·野有蔓草」)의 사구(四句)를 「婉」에 빗대어 이어 읊는데, 이는 곧 완칭(婉卿)에게 그렇게 굽어 모아 만든 사구일장(四區一章) 따위는 『시경(詩經)』에 없다고 한소리를 듣는다. 다음으로 읊은 것은 자작에 가까운 「黃鳥來止, 宛丘之上, 頡之頡之, 泌水洋洋, 多且旨!」라는 구절이다. 「黃鳥」는 『시경(詩經)』에 종종 등장하여 관목(灌木)에 날아들기도 하고(「集于灌木」), 언덕 한 켠에 머무르기도(「止于丘阿」) 한다. 완칭(婉卿)은 처음 두 구절을 듣고 나서 「이것은 흡사 “비(比)이면서 흥(興)”이네요」라며 다 듣고 나서 「陳風·月出」에 「泌之洋洋」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水」로 바꿨는지를 묻자(여기서 완칭(婉卿)이 질문을 한 김에 말하자면, 일전의 「清揚婉兮」은 원래 「婉如清揚」인데 이도 바뀌 버렸다고 허광(和光)에게 따지는 것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野有蔓草」에는 두 형용이 모두 쓰이고 있다. 마오둔은 완칭(婉卿)이 틀리게 끔 설정하고 있는 것이리라), 「水」로 고친 것이 어째냐, 더 좋지 않냐고 되물음 당해 얼굴을 붉힌다. 『毛詩正義』에는 「泌泉水也」라 되어 있으며, 「水」로 고쳐도 고치지 않아도 같은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행위를 암시하는 「水」(淫水)이기 때문에 완칭(婉卿)은 얼굴을 붉힌 것일 것이다. 그런 완칭(婉卿)도 다음의 「月令」(다달의 변화를 취향으로 한 말 놀이)에서는 허광(和光)의 「雀入大水化爲蛤」에 맞춰 부끄럼도 없이 「雀入大蛤化爲水」라 받아 치며 둘이 자지러지게 웃는다. 이런 말장난은 성행위에 대한 의식 상의 탐닉(耽溺)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마오둔은 전아(典雅)한 놀이 속에 그러한 탐닉을 용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뜰에 마련된 허광(和光)의 서재 「해은헌(偕隱軒)」에는 가오칭치우(高青邱)의 시 「行香子」의 한 수가 걸려 있으며, 황가(黃家)는 본편보다도 더 고전문학의 향기에 에워싸여 있다.

치엔량차이(錢良材)는 치엔가(錢家)의 삼남 치엔준렌(錢俊人)의 아들인데, 장남(그 부인이 장가(張家)에서 시집 온 루이 숙모(瑞叔母))의 아들이 둘 다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로서 장남의 집으로 들어왔다. 본편에서는 행동적인 개명(開明) 신사이지만, 「속고」에서는 국민당에 입당하여 국공합작에서 분열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간다. 이 량차이(良材)가 완칭(婉卿)을 뛰어난 여성으로 인정하는 장면은 본편에서도 나오지만 이상의 여성이라 칭송하는 장면은 본편에는 없었던 설정이다. 「속고」에서는 그가 미남자인 것이 밝혀진다(라기보다도 본편은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량차이(良材)가 상하이에 원칭(文卿)(계모의 형수의 남동생)을 찾아갔을 때 원칭(文卿)은 량차이(良材)와 함께 기루(妓樓)에 오른다. 거기에

서 평메이성(馮梅生), 평치우팡(馮秋芳) 오누이의 백부(「숙부」라고 하는 곳도 있으며 통일되어 있지 않다) 평 매관(馮買弁)이라 불리는 평투이엔(馮退奄)과 만나고, 평(馮)의 손님이 원칭(文卿)에게 량차이(良材)의 미모를 『삼국지(三國志)』의 주유(周瑜)에 비유하며, 평(馮)은 정위엔허(鄭元和)(당대 전기(唐代傳奇)「李娃傳」에서 제재(題材)를 가져온 명대(明代)의 희곡(戲曲)「수유기(繡襦記)」의 등장 인물)을 빗대어 가며, 기녀(妓女)들 조차 이 구가(旧家)의 귀공자(「世家公子」)에게 폭 빠져 버린다. 그 용모는 「白面紅唇, 劍眉星眼, 英俊之中帶一点嫵媚, 襯着那一身高級洋服, 更顯出骨格清奇」라며, 재자가인(才子佳人)의 소설에라도 나올 법 한 미소년(「小白臉」)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듯 기녀들에게 둘러싸인 량차이(良材)이지만, 기녀리는 비천한 직업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의 산물이며 그녀들 자신을 평등한 인간이라 여겨 같이 뒤섞여 노는 일은 없다. 평 매관(馮買弁)과의 대비를 통해 량차이(良材)의 정의로운 모습이 부각되는 장면이다.

량차이(良材)는 완칭(婉卿)의 남편 황허광(黃和光)을 앞에 두고 「이 세상이 넓다고 하지만 완칭(婉卿)에 비할 여성은 한 명도 없다. 나는 후처는 별로 들일 생각도 없지만, 만약에 들인다면 꼭 완칭(婉卿)과 같은 사람으로 할 거다」라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 완칭(婉卿)은 그 량차이(良材)의 정의감과 사회적인 행동력을 인정하여, 스스로도 손전방군(孫伝芳軍)과 북벌군(北伐軍)과의 개전(開戰)을 회피하려고 왕보선(王伯申)을 움직여 북벌군의 입성을 획책하려는 수를 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행동에 끌려가는 일 없이 매진하는 량차이(良材)를 「타오주공(陶朱公)」(판리(范蠡)의 기개로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량차이(良材)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완칭(婉卿)은 남편을 회복시키고 아들까지 얻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약간 이상화(理想化)된 량차이(良材), 완칭(婉卿) 두 사람이 서로 관계하면서도 각자의 인생에서 풍부한 결실을 맺어 나간다고 하는 「속고」의 줄거리는 「본편」과의 정합성을 잃지 않은 채로 전개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인물상에는 본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은 변용이 더해졌으며, 작품의 무대가 확대됨과 동시에 『상엽(霜葉)』의 소설 세계는 새로운 로망을 향해 뻗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속고」가 「속편」으로 완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독자는 작중 인물의 매력은 물론이고, 작품의 정치 의식, 성애 의식의 현재화에 놀랐을 것이다.

## 5. 나가며 - 「상엽(霜葉)」과 「가짜 좌파(左派)」

『상엽(霜葉)』이란 제목은 두무(杜牧)의 7언 절구 「산행(山行)」의 한 구절에서 「於」의 한

글자를 「似」로 바꿔 적은 것이다. 이 제목의 유래에 대해서는 마오둔이 「신판후기(新版後記)」(58년)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음력 2월 봄, 붉게 앞 다튀 피는 꽃의 아름다움이란 눈부시지만, 바람과 서리를 견뎌내기란 어려우며, 단풍잎은 서리를 맞으며 2월의 꽃보다도 짙게 붉은색으로 물이 든다.

원시(原詩)를 이렇게 해석한 후에 마오둔은 원시의 의미를 반대로 전용(轉用)한 전의(轉義)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엽(霜葉)』 속의 주요 인물들은 최초(1927년 국민당 쿠데타 이전)에는 「좌파」였고, 마치 진정한 혁명당인 것처럼 보였으나, 시련을 맞으면서 일부는 소극적이 되었고, 일부는 적에게 붙곤 했다. 『상엽(霜葉)』과 비교하여보면, 이러한 「가짜 좌파(左派)」는 진짜 붉은 꽃보다 빨간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요컨대 그럴싸하게 보이고 있는 것일 뿐, 「닭은꼴(似)」이라고는 하나 진짜(真)는 아니다 「似」而已, 非真也. 게다가 27년 이후의 반혁명 세력의 흥륭(興隆)도 일시적인 것으로, 『상엽(霜葉)』과 같이 결국에는 조락(凋落)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似」에도 비교급의 「於」과 같은 용법이 있지만 마오둔은 동등 비교를 위해 「似」로 바꾸었다. 바꾸어서, 눈비음의 『상엽(霜葉)』(즉 「가짜 좌파(左派)」)은 이월화(二月花)처럼, 시련을 못 견디고, 일시적으로 피어오르는 세력 또한 『상엽(霜葉)』과 같이 지고 마는 운명이라고 하는 동등 비교를 내포시킨 것이다. 본편은 1923년, 24년경의 이야기<sup>19)</sup> 이기 때문에 아직 「시련」은 도래하지 않았다. 진짜 혁명당다운 인물도, 비록 치엔량차이(錢良材)에서 그 편린(片鱗)을 엿볼 수는 있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과연 「속고」는 이 제목이 갖는 의미를 풀어 밝히는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속고」의 이야기 전개는 분명 북벌에서 국민당 쿠데타로의 진행, 「시련」 후의 좌파의 우경화(右傾化)를 시야에 넣고 있다. 마오둔이 말하는 「가짜 좌파(左派)」에는, 1)우파가 좌파를 가장하여, 좌파를 부고(誣告)함, 2)국민당 좌파의 동요, 우경화, 3)공산당에서 이탈, 전향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1)은 『동요(動搖)』의 후귀광(胡國光), 2)도 마찬가지로 팡뤄란(方羅蘭)으로 이미 형상화되어 있으며,<sup>20)</sup> 「속고」에서도 국민혁명군이 입성한 후, 봉건지주 자오쇼이(趙守義)의 측근 중 한 명인 판송페이(樊雄飛)가 치엔량차이(錢良材)를 토호열신(土豪劣紳)의

19) 본편 제2장의 주싱지엔(朱行健)의 좌담에서, “무술(戊戌)로부터 20년”이라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20) 줄고(拙稿)(1985) 「『動搖』論」 『野草』36호

수괴(首魁)라고 부고한다. 정치적 혼돈(카오스)을 그리는 것은 만년의 마오둔에게 있어 줄곧 자극적인 테마였다. 2)에 관해서는 국민당 내에 착종(錯綜)하는 파벌의 세부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으며, 3)도 처음으로 소설화하는 주제이다. 「신판후기(新版後記)」에 제시된 방향은 「속고」의 완결로 분명해 졌으며, 제목의 의미도 밝혀질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필한 「속고」만 가지고 본다면, 마오둔의 집필 의식은 「신판후기(新版後記)」의 방향에 반드시 합치하지는 않고, 그 관심은 히어로, 히로인이 활약하는 모험 연애담(로망스)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sup>21)</sup> 「신판후기(新版後記)」에 나타난 구상, 또는 정치적 모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작품으로 완성시키고 싶다는 작자의 원망(願望)인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해설되고 있는 제목과 본편의 「연계부상(關係不上)」이라고 하는 관계는, 작품 자체의 미완·완결에 관계 없이 연결 고리가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괴리(乖離)가 제목을 상징적 존재로 하여, 어딘가 메타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별종(別種)의 효과를 만들어 왔다. 「속고」가 공개된 후에도, 이번엔 작자의 집필 의식이 다른 것으로 옮겨 간 탓에 그 괴리는 기본적으로 좁혀지지 않고, 제목에 고집(固執)하면 그 의미는 더욱더 풀리지 않는다. 본편, 「속고」라는 신구(新田) 이중(二種)의 텍스트는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이 점 대해 우푸휘(吳福輝)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완칭(婉卿)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원래 그녀는 가정 내 서재에서 그 총명함을 발휘해 왔지만, 지금은 주가(朱家) 부자(父子)의 포스트를 지키며, 친시엔(琴仙)을 구해 내고, 현(縣) 내의 정치적 악폐를 몰아내고, 북벌군을 맞이하는 등, 작전을 짜고 계략을 세우는 데 능한 재능을 나타낸다. 게다가 장진주에(張今覺)라는 여성이 등장하여 치엔량차이(錢良材)와 인연을 맺는 전개는, 그 시대 청년을 밝게 비추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상엽(霜葉)」식 인물을 향한 비판은 여전히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현 내의 봉건적인 보수파 자오쇼이(趙守義)와 신파(新派) 부르주아 왕보션(王伯申)의 싸움에서의 양 파(派)로 말할 것 같으면, 자오(趙) 측은 시종일관 하고 있으며, 그는 쑤촨팡(孫伝芳)과 결탁하는데, 왕(王)은 거의 단절된 채로, 더욱이 펑(馮), 왕(王) 양가는 혼인관계로 이어지고, 완칭(婉卿)도 적극적으로 관계해 나가는 전개에서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부르주아의 「파괴성」을 느끼기는 힘들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sup>22)</sup>

이 계발(啓發)적 지적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완칭(婉卿)이 펑(馮), 왕(王) 양가와 적극적으로

21) 덩이강(丁爾綱)은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와 그 속편에 대해서」(『野草』55호, 1955년)에서 장진주에(張今覺)의 모습은 「국민당 좌파의 여걸 쓰지엔차오(施劍翹)를 연상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

22) 주11)과 같음. 이 단평에서는 「상엽(霜葉)」식 인물을 향한 비판은 「依然不多見」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우푸휘(吳福輝)에 의한 일본의 「序言」에서는 「依然不見」라고 되어 있다.

로 관계를 맺고, 치엔량차이(錢良材)와 장진주에(張今覺) 두 사람이 국민당 좌파의 변절을 한탄하며, 자신들 스스로도 은서(隱棲)하게 되는 결말은 분명 「상엽(霜葉)」식 인물을 그린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생생한 히어로, 히로인으로 그려져 있고, 비난 받지는 않는다. 비난 받아 마땅한 「가짜 좌파」는 주요 인물의 변절, 변용을 비판하는 형태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에게 전한 정보로써, 또는 관송페이(樊雄飛)와 같은 주변 인물의 행위로 그려진 것에 불과하다. 제목은 역시 작품의 내용과 괴리된 상징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 원래 마오둔이 「상엽(霜葉)」에 담으려고 한 의미에는 좌파의 변절뿐 만 아니라, 우파의 일시적인 대두, 흥륭(興隆)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적 혼돈이 초래하는 인간의 변용이라는 한층 더 추상화 된 수준의 의미를 제목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본편을 읽어 본다면, 마지막 장의 결말에서 치엔량차이(錢良材)가 던진 「한 사람의 인간이 선악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질문 속에 「상엽(霜葉)」이란 제목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말하자면 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參考文獻】

- 「茅盾的晚年生活(三)」(『新文学史料』(1955), p.82  
『我走過的道路』(下), p.300  
吳福輝(1996)「白楊樹下的月季小院」『收穫』, p.46  
王金吾·陳瑞雲『中国現代史詩典』吉林文史  
薛謀成 編著, 厦門(1991)『国民党新軍閥史略』대학출판사  
秦德君(1998)『櫻蠶』『野草』41, 42號  
『茅盾代表作選』上海全球, 民国  
丁爾綱(1995)『茅盾 孔德訖』중국청년출판사, p.7  
졸고(拙稿)(1985)『動搖論』『野草』36호  
丁爾綱(1955)『『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와 그 속편에 대해서』『野草』55號

\* 부기 : 본 논문은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강사인 정중희씨의 번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

논문투고일 : 2016년 01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1월 06일  
1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3일  
2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2월 15일

---

---

 <要旨>
 

---

##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속고(續稿)의 집필 세계

- 의식해방과 망명지 일본에서의 사상적 동요 -

고레나가 슌

마오둔(茅盾)의 『상엽홍사이월화(霜葉紅似二月花)』는 1942년에 집필하여 이듬해인 1943년에 걸쳐서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민국의 1920년 초기인데 본래 20년대 후기의 무한(武漢)정부 붕괴 이후까지 써나갈 일대 장편으로 구상했던 작품이다. 「속고」는 소설가 마오둔이 최후에 자기자신과 마주앉아 자기자신의 존재의미를 증명하고자 했던 「고백」의 글로써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마오둔이 「속고」에서 국민당에 대한 정치의식을 현재화(顯在化)하는 것은 그것을 단독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의식 안에 봉인해 두었던 것을 해방시킨 일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무대로 등장하는 것은 그 결과인 것이다. 마오둔은 1년 9개월의 일본 「망명」을 경험하면서 일본을 소설의 무대로 한 적이 없었으나, 이 「속고」에서는 황허광(黃和光)이 성기장애를 치료하고, 치엔량차이(錢良材)가 망명한 토지로써 일본이 등장한다. 마오둔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토지는 이당(離黨) 후의 「망명」지에서의 사상적 동요, 친덕군(秦德君)과의 연애와 그 후의 과탄이라고 하는 아포리아(난제)와 떼어낼 수 없는 토지로써 의식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본고는 「속고」의 성립. 그리고 『상엽(霜葉)』에서 「속고」로 이어지는 정합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오둔의 집필의식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A study on a view of Mao Dun's consciousness through  
 “Shuang Ye Hong Si Eryue Hua” and its’ “Next manuscript”

 - focus on the liberated consciousness of writing, and Japan  
 as the location where Mao Dun got ideologically agitated -

Gorenaga, Shoon

Mao Dun began writing “Shuang Ye Hong Si Eryue Hua (霜葉紅似二月花)” in 1942, and it was published as a full-length novel in 1943. The chosen time setting for this piece is the early 1920's of Minguo (民國). However, the idea for the novel had been originally portrayed the late 1920's, which was the time of the fall of the Wuhan (武漢) government. In the “Next manuscript (續稿)” of the novel, Mao Dun confirms his own sense of being as a confessional narrator sitting opposite himself. His salient political view to the Kuomin-tang (the Nationalist party) was to be free of conflict over a suppressed past, which he had been concerned about when fleeing the Communist party in fear of his life. Considering the episodes of Huang's (黃和光) sexual dysfunction, and Qian's (錢良材) political asylum, Japan might be described as the location where Mao Dun got ideologically agitated. Given that the characters are his “Aporia”, and in return ultimately inseparable, our reception of the location of the novel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understand his works of the period. This paper explores the literary environment of “Shuang Ye Hong Si Eryue Hua (霜葉紅似二月花)” and its’ “Next manuscript (續稿)”. This analytic approach and its’ consistency to both articles will help us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Mao Dun's consciousness of writing.